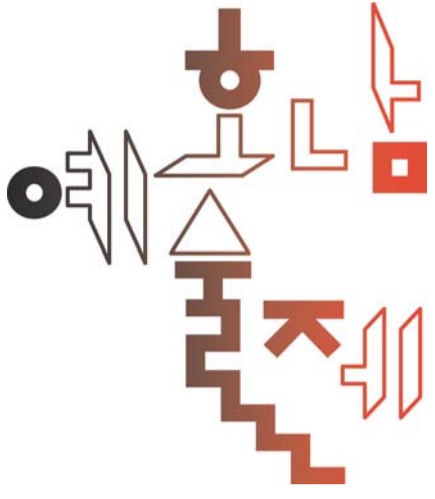


열정의 몸짓...예술 꿈나무들의 눈부신 비상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65회 호남예술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이 수차례 변경되고, 학부모의 동행이 금지되는 등 변수도 많았지만, 피아노·무용·국악 등의 분야에 참가한 꼬마 예술가들은 저마다 기량을 뽐냈다. 이들의 경연 모습을 화보로 담았다.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려한 자태 지난 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송광중 서하진양이 발레 '파티타이다지오'를 선보였다. 하진양의 춤을 다중촬영했다.



송윤하(광주예고 1)양의 한국창작무용 '수화, 붉은 꽃이 지다'.



성악 독창 이하연(진월초 1)양.



현악 첼로 이윤후(계림초 4)군.



타악 설장구 공민규(신용중 3)군.



중창부문에 참가한 서정원 외 7명의 초등학생들이 흥겨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은세(남평중 다도분교 3)양의 가야금산조.



유연한 춤사위 지난 3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현대무용 부문 경연에서 서채원(광주예고 1)양이 'water hole'을 선보였다.